

특별기고



박경철(안토니오) 지식나눔네트워크 대표

대한민국이 프란치스코 신드롬에 빠졌다. 교황의 방한 이후 가톨릭 신자들뿐 아니라, 종교가 다르거나 없는 사람들마저 교황의 일거수일투족에 환호하고 감동하고 있다. 가히 '룩스타 교황'다운 인기다. 사람들은 소형차를 타고, 차를 멈춘 채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직접

서류 가방을 들고, 빨간 장화가 아닌 낡은 구두를 신고는 교황의 소탈한 모습에서 권위가 아닌 진심을 보았다.

그런 교황이 꽃동네에서 4000명의 수도자들에게 말했다. "청빈 서원을 하지만 부자로 살아가는 봉헌된 사람들(수도자)의 위선이 신자들의 영혼에 상처를 입히고 교회를 해친다." 특히 단상 위의 주교들과 고위 성직자들을 돌아보며 던진 이 한마디는 무엇이든 이해할 것 같았던 평소 그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룩스타 교황의 또 다른 모습이었다.

교황이 이름을 딴 프란치스코 성인은 "마음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름이 있는 곳에 용서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라는 그 유명한 '평화의 기도'의 주인공이다. 베르골리오 추기경이 교황이 되면서 바로, 베드로, 요한, 요한 바오로, 베네딕토와 같은 무난한 이름 대신 성인 프란치스코의 이름을 교황명으로 채택했을 때 많은 이들이 고개를 가우뚱거렸다.

바티칸 시국의 국가원수이자 미켈란젤로의 벽화와 금박으로 치장된 성 베드로 대성당의 주인이 '가난 부인'과 결혼하고 '죽은 친구'와 함께 했다는 성인 프란치스코를 지향으로 삼는다는 것은, 충을 들고 평화를 외치는 것만큼이나 어색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연타석으로 '사교'를 쳤다.

화려한 전용 숙소 대신 소박한 게스트 하우스에서 자고, 직접 고를자를 운전하

며, 노숙인을 불러 생일 식사를 하고, 이 교도의 밤에 입을 맞추고, 암살 위협을 무릅쓰며 마피아를 전부 파문해 버렸다. 그뿐이던가, 광화문에서 열린 시복식에서는 '막대한 부유와 풍요 결에서 매우 비참한 가난이 소리 없이 자라나고, 가난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좀처럼 주목받지 못하는 사회'라는 통렬한 메시지를 날리기도 했다.

그가 진짜 성인이어서일까? 아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의 말이나 행동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들이다. 성직자나 수도자는 평생을 그리 살기로 약속한 사람들이다. 교황은 성직자로서 원래 자신이 약속한 대로 행할 뿐인 셈이다.

지도자로서도 마찬가지다. 맹자의 말대로 '죽은지심'은 지도자의 기본 덕목이

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고통에 손을 내밀며, 약자를 돌보는 것은 모든 지도자들에게도 공히 요구되는 기본 덕목 아닌가. 그러나 교황 정도의 세계적 지도자가 그 정도의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도리어 이상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 당연한 것에 열광할까? 당연한 것들이 너무 당연하지 않다 보니, 너무 당연한 것이 빛나 보이는 것이다. 교황이 세월호 참사의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장면이 지켜보던 국민들의 마음을 울린 이유도 그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누구도 하지 않던 일을 백안의 이방인이 대신하는 것을 보며, 미안하고 감사했던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이번 교황 방문을 통해 종교인의 참모습, 지도자의 덕

목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았다.

그러고 보니 큰일났다. 국민앞에 군림하던 정치인들이나, 약자 대신 강자의 편에 섰던 많은 종교지도자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됐다. 국민들이 진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았고, 지도자의 참모습을 경험했으니, 짝퉁들이 큰일난 것이다.

때마침 영화 '명왕'까지 역대 최고 흥행 기록을 썼다. 거기서 지도자의 용기가 무엇인지 국민이 보았다. 그러나 이순신에 묻어가고 극장에 앉아 명랑을 관람하는 퍼포먼스를 벌인 정치인들, 교황 행사에 이름 석자 올려 슬며시 얹혀 가려던 정치인들 이제 그들은 큰일났다. 자칫하면 '껍데기는 가라'는 쟁돌과 야유가 쏟아질 판이니 말이다.

작통 정치인과 종교인들 큰일 났다

교황 만난 나현식 광주대교구 평신도협의회장

“늘 낮은 자세의 모습 깊은 울림”

고급 의자 물리치고 제대에서 내려와 말씀 “도움 필요한 이들에 다가가라” 가슴에 박혀



가톨릭의 역사는 선교사가 아닌 평신도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시작됐다. 103위 성인을 비롯해 지난 16일 복자의 반열에 오른 124위 순교자들은 고통과 죽음으로 한국 가톨릭의 역사를 일궈고, 평신도들은 이 같은 정신을 밑바탕으로 한국 가톨릭을 발전시켰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6일 오후 충북 음성 꽃동네 '사랑의 영성원'에서 직접 교황을 만난 천주교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이하 광주평협) 나현식(60·안드레아·운암동성당) 회장의 감회는 남다르다. 그는 이날 광주평협 임원 5명, 천주교 광주대교구 생명운동본부 김명섭 본부장 신부 등 생명운동본부 회원, 꽃동네 광주지역 후원회 회원 등과 함께 전국에서 153명이 참석한 '교황과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대표들과의 만남'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자리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평신도들을 격려하고 해아할 일들을 당부하는 자리였다.

지난 15일 천주교 광주대교구 소속 사제와 평신도 등 1500여 명과 함께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성모승천대축일 미사'에도 참석했던 그는 이날 20여 분 간의 짧은 만남 속에서 항상 낮은 자세로 향하

려는 교황의 모습을 봤다.

“인론을 통해서만 들던 교황님을 직접 뵈고, 말과 행동이 너무 똑같은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 행사가 끝나고는 교황님께서 직접 저희들의 자리로 오셔서 사인을 찍기도 하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황님께서 항상 낮은 자세로 저희들과 가까이하고, 또 그 안에 있으시려고 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순교자들이 남긴 값진 유산은 평신도들의 믿음과 사랑, 봉사 활동 안에 줄곧 살아 있다고 강조했다.

“광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였어요. 짧았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만남이었죠. ‘가난한 자들의 빛’으로 불리는 그분의 삶처럼 ‘항상 가난한 이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라’라는 말씀이 아직도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나 회장에게는 이번 교황 방한과 만남이 평신도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다. 특히 아시아의 다른 지역과 달리 평신도 등 순교자들의 희생으로 일궈낸 교회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기도 했다.

광주평협은 교구 내 본당 사목회장과 교구단위 단체장들이 화원으로 있는 단체로 본당과 본당, 단체와 단체 등 평신도들의 유대강화와 정보교환, 복음 전파에 힘쓰고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위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윤지중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시복식'에 앞서 카 퍼레이드를 하던 중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김영오씨를 위로하고 있다. <천주교 교황방한위원회 제공>

지역민 반응

“복자 인정, 거룩한 죽음 헛되지 않게 해줘”

평신도 배길자(여·59) 수산나

16일 새벽 2시 출발해 광화문에서 열린 시복식에 참석했다.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모였는데 행사가 끝난 후 모두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줍고 주변을 정돈해 천주교 신자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교황님께서 세 번째로 방한해 주셨다는 사실

만으로도 정말 영광스럽다. 특히 그동안 한국 천주교를 위해 희생된 분들을 복자로 인정해주셔서 그분들의 거룩한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해주셨다는 점이 기쁘다. 또한 이번 교황 방문과 시복식을 계기로 과거 한국 천주교 인태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인간 위한 희생, 사제로서 삶에 큰 씨앗”

박종원 안토니오 신부(32)

충남 서산에서 열린 한국 청년대회에 참석했다. 개인적으로 사제서품을 받고 첫 걸음을 떼는 나에게 교황님을 직접 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감사하다.

이번 청년대회에서 캄보디아에서 온 마리나라는 여학생이 청년들에게 특별히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묻자 교황님이 세 번이나 강조하신 말씀이 있었다. 인간을 위해 희생한 그분이 우리 삶에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한다고 청년들에게 세 차례나 강조하셨다. 교황님 말씀은 신

부인 나는 물론 천주교 신자와 신자가 아닌 모든 이들이 가슴 속에 새겼으면 한다. 큰 규모 행사를 잘 마쳤다는 것에 만족하고 즐거운 추억으로 끝내지 말자. 개인과 사회가 달라지는 삶의 씨앗으로 삼아야 한다.

교황께서는 청년들에게 당부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편한 길만 선택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주변 이웃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번 교황 방한으로 교회가 가난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돕는 본래 정신이 나타나기를 기도한다.

“실천하는 수도자... 불교신자인 내게 또 다른 가르침”

불교신자 이정옥(59)

독실한 불교신자지만 요즘 내가 읽고 있는 책이 교황 프란치스코의 공식 대담집인 '나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이다. 그분의 인품을 잘 알 수 있는 글들이 많이 실려 있다. 참다운 수도자, 실천하는 수도자라는 생각을 했다.

종교는 다르지만 교황님의 말씀이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또 하나의 진리라고 생각

한다. 내 마음에도 그분의 자비와 사랑이 함께 하면 좋겠다.

작은 소형차를 타시는 모습에서 물질만능주의에 찌든 우리 사회를 생각했다. 광장히 신선한 충격이었다. 세월호 유족, 위안부 등 사회의 약자를 배려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개인 중심으로 살아가는 요즘 시대에 약자, 소외된 사람을 만나는 모습을 보고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됐다.

2013년도 경영평가 최우수금고 선정

2013년 서양새마을금고 사랑 나눔

2013년 금고자산 2,607억원

당기순이익 15억3천만원

출자배당금 5%

서양새마을금고

기성고대출 전문취급금고

땅은 있는데 공사비가 부족하신 분과 건설회사를 위한 대출!

착공부터 완공시까지 자금지원

대출한도는 최고 15억

토지에 기존 대출 있어도 가능

대출금 지급방법 공사 기성에 의한 지급

상담시 구비서류

· 시설명세와 소요자금 명세 · 공사시방서

· 공사도급 계약서 · 도급업자의 도급공사

· 공사비목명세서 · 기성부분 보고서(기성고명세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상담에 임하겠습니다.

담당 민 창 원 과장 연락처 062)720-2828

서양새마을금고

광주지역 영업대행사 모집

부동산114와 함께 광주광역시 사업활성화를 선도할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지역대표 영업대행사를 모집합니다.

- 영업지역 : 광주광역시 및 전남지역
- 영업부문 : 중개사무소 광고 및 가맹영업
- 자격조건 : 광주광역시 소재 영업인력 3명 이상
-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사업계획서 포함)
- 우대사항 : 지역신문 광고영업 유경험자 키워드, 온라인 광고 유경험자
- 지원문의 및 온라인 지원 부동산114 중개채널팀 정성수 과장 TEL. 070-7011-0075 e-mail : bisu@r114.com

부동산114 부동산114 주식회사

앞으로의 금융! 신협이 함께 합니다.

하나로대출

한도는 높게 Up&Down 금리는 낮게

집 담보도 상가 담보도 전세보증금 담보도 자동차 할부금 대출도 카드론 · 현금서비스도

모든 대출을 하나로! 통합관리 해드리겠습니다

추천 정부보증서대출 햇살론 최고 2,000만원

광주원광신협

공동점 227-4474 금호점 383-4474 풍암점 653-4474